

“더민주, 호남 무임승차 더 이상 안돼 ... 수권능력 보여줘야”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듣는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별명은 '미스터 스마일'이다.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원칙에 충실한 정치 행보를 보여 호평을 받아 왔다. 15대부터 내리 6선을 지내면서 신사적인 의원에 수여하는 '백봉신 사상'을 여섯 차례나 받았다. 당 대표만 세 번을 지내면서 '직업이 당 대표'라는 말을 듣기도 했다. 정 의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95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특별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전에는 쌍용그룹 계열의 종합상사에서 상무이사까지 지내는 등 실무경력을 경험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는 등 야권의 대표적 '경계동'이다. 합리적 리더십에 따르는 후배 의원들이 많아 더불어민주당 내에 계파가 형성되기도 했다.

지난 2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광주일보와 한 시간 동안의 인터뷰에서도 정 의장은 국가의 전 시야 2위의 권위적인 모습보다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로 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호남의 현실을 거론할 때는 한숨과 함께 고심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박근혜 정권 등 보수 정부의 실정을 거론하면서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호남의 미래를 위한 현실적인 해법에 대해 '결국은 정권교체'라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인터뷰=임동욱 서울취재본부 부본부장

-20대 국회에 대한 민심의 요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협치”라하는 것이다. 국민에게 짐이 되지 말고 힘이 되라는 명령이다. 여야가 힘을 모아 민생을 챙겨야 한다. 특히, 국민과 국회가 거리가 너무 멀다. 불신이 너무 크다. 불신 해소가 1차 과제라고 생각한다.

-불신 해소의 구체적 방법은

▲특권을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길 밖에 없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그동안 선언만 했지 실천은 없었고, 이는 정치 불신으로 이어졌다.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직속자문기구를 만들어 규정도 정하고 입법에도 나설 것이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국민 여론이나 국회의원들의 판단은 '이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의 개헌 논의로 연구도 다 되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20대 국회에는 꼭 하자는 입장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부정적이다.

▲박 대통령이 피해 간다면 차기 대선주자들이 개헌을 공약으로 내놓을 것이다. 국민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대선 후보들이 개헌 문제를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력구조 개편에 대한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조정할 수 있다면 형태는 무엇이든 관계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이 비극의 씨앗이라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우선, 꼭 필요한 법이다. 반드시 만들 것이다. 그런데 재표결론과 재발의론 등 방법론에 이견이 있다. 법리대로 할 것이다. 정기국회 시작하면 교섭단체와 협의하고 전문가에게도 듣고 해서 가닥을 잡겠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해법은.

▲대통령과 정부가 무능하게 결정, 국민 갈등은 물론 국익에 손상을 초래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국회와 협의하고 국민과 소통하고 주변국들과 대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철퇴해야 하나.

▲그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국회와 의논했어

야 한다. 이런 정도 중요한 문제는 기준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 정부 부담도 줄이고 미국에 국회 핑계를 댈 수 있는 것 아닌가.

-국회의원 시절 경제통으로 평가받았다. 심각한 경제 현실에 대한 해법이 있다면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제때에 하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했다. 정부의 무능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구체적 해법으로는 상시적 구조조정이나 서민·중산층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면서 신성

“ 특권 내려놓고 일하는 국회되어 국민 불신 해소 될 것 ”

20대 국회에는 꼭 개헌해

제왕적 대통령제 권한 조정

영남 패권주의 심각한 건

염치·체면없이 저지르기 때문

장 동력을 발굴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회도 신산업분야에 필요한 법과 제도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서 기업들이 유보금을 미래지향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지난 총선에서 더민주가 호남에서 참패했다.

▲더민주가 가장 소중하고 강력한 후원 세력인 호남민심의 기대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사랑만 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무임승차'는 더 이상 안 된다. 과거에 지불하지 못한 차비까지 합쳐서 지불하는 노력을 펼쳐야 호남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 호남인의 정치의식은 간단치 않다. 수준에 맞는 정치를 펼쳐야 한다.

-호남의 경제적 활력과 비전이 실종됐다.



▲전통 산업인 제조업 부문에서 뒤진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을 따라 잡기보다 미래형 산업에서 뒤지지 않고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정권 교체가 이뤄져도 호남의 미래가 담보될 것인지 우려가 많다.

▲(정권교체에)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과거 10년 집권했을 때 새만금개발 등을 지역 내외의 논란 등으로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못했다. 광주의 아시아문화전당도 전남도청 문제로 몇 년을 하송세월 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신속하게 매듭짓고 미래로 나아가는 역량이 필요하다.

-정치권을 바라보는 호남 민심의 시름이 깊다.

▲야권에 시급한 것은 수권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내년에는 정권교체 할 수 있다는 수권 능력을 호남민들에게 보여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남 민심의 가장 절실한 요구 사항은 정권교체다. 더민주든, 국민의당이든 같은 주문을 내놓고 있다. 양 정당이 수권 능력을 놓고 건강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예산과 인사 등에서 호남 소외가 심각하다.

▲정권교체가 현실적인 답이다. 정권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래야 특정 지역이 특혜 받고 홀대받고 그런 것 없이 국가가 균형 발전한다.

-영남 패권주의가 심각한 것 아닌가.

▲그 사람들은 염치도 체면이고 없이 저지른다. 과거에 우리는 눈치를 많이 봤었는데...

-보수정권 10년을 평가하면.

▲어느 정부든지 잘한 일 두 가지는 있기 마련이지만 두 번의 보수 정권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고(故)김대중·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했다. 배운

점이 있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애민 정신, 국민 중심의 사고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소수·소외계층에 대한 애정을 가졌었다. 정치가, 국가가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좋은 지도자들이다. 그만큼 지도자를 찾기 어렵다.

-차기 대선 앞두고 야권 통합에 대한 전망은.

▲일대일 구도가 승부를 높일 것이다. 통합이 최선이고, 연대가 차선, 단일화는 기본, 분열은 최악이라는 것이 나의 지론이다. 어떻게든 정권 교체할 수 있도록 대응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연합·연립정부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어차피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힘을 합칠 수밖에 없다. 선거 때도 합치고 그 이후에도 합쳐야 한다.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차기 대선을 앞두고 야권에서는 낙관론이 나오고 있다.

▲인물도 우리(야권)가 많고, 저쪽(여권)의 실책이 심각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높다고 본다. 그러나 여론은 일어나 성과는 무수하지만 선거 때 반쪽짜리 제주는 능수능란하니까 간단치 않을 것이다. '죽기살기'로 해야 정권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적 성공의 비결은.

▲합리적으로 상대를 존중하며 소통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책이나 입장은 분명히 한 것이 바탕이 된 것 같다. 별명은 'Mr 스마일'이었지만 사립학교법, 미디어법 등의 악법과 싸울 때는 그 누구보다 선명하고 강력하게 투쟁했다.

-정치 역경에서 가장 뼈아픈 지점은.

▲세상을 바꾸려고 정치를 시작했다. 장관과 대표 등 중요한 직책을 맡아 지난 20년 동안 국가와 국민,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일을 하고 노력했지만 자금의 현실을 보니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 양극화는 심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 반성과 성찰을 하고 있다.

-역대 국회의장 가운데 롤 모델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부터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헌법정신이 구현되는 국회를 만들자고 했다. 입법부가 제구실을 못했기 때문에 선배들을 따라하면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존경하는 선배들 많지만 의회주의가 살아있는 선진국에서 모델을 찾아야 한다.

-호남에 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사람을 키워야 한다. 호남 인재를 잘 키워서 호남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호남의 자존심을 살려서 호남 정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나갈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란다.

/정리=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프로필 △1950년 전북 진안 출생 △신흥고·고려대 법대 △쌍용그룹 상무이사 △15·16·17·18·19·20대 국회의원 △새천년민주당 정책위의장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산업자원부 장관 △열린우리당 의장 △민주당 대표 △20대 국회 상반기 국회의장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원시 접수 2016. 8. 8(월)~18(목)
 전형일시 2016. 8. 22(월) 오후 2:00
 합격자 발표 2016. 8. 24(수) 오전 10:00 예정
 등록금 납부 2016. 8. 24(수)~25(목)

▶모집학과 및 인원

대학원	과정 (수업연한)	학 과	모집 정원
일반대학원	석사(4학기)	신학과(Th.M.)	0
		유아교육학과(M.Ed.)	0
신학대학원	석사(6학기)	신학과(M.Div.)	0
음악대학원	석사(4학기)	실용음악학과(M.A.)	0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2016학년도 후기 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편입생 모집

지원 자격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자격에 해당되는 자(단,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 2학년 0명(주·야) 2학기 이상 수료 및 30학점 이상 취득자
 - 3학년 0명(주·야) 4학기 이상 수료 및 60학점 이상 취득자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입학문의 ▶ 062)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13로 36

청(靑)소년 예비전문가를 위한 다같이·즐겁게·모이자·방

교육일시 ▶오픈강의(1회) : 2016년 9월 24일(토) 14:00 ~
 ▶청다락방 본강의(4회) : 2016년 10월 8일(토) ~ 10월 29(토) 매주 토요일 14:00~

장 소 광신대학교 국제관 1층 국제회의실

수 강 료 무료

신청문의 ▶오픈강의(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학생상담센터 062)605-0903 E-mail : flyhigh132@naver.com
 ※ 2016. 9. 8(목)까지(신청기한임수)
 ▶청다락방 본강의(4회) : 평생교육원 062)605-1112, 1063

강의일정 ▶오픈강의 : 2016. 9. 24(토) 14:00 ~ "생명사랑지킴이 양성교육"
 ※ 보건복지부·중앙자살예방센터(3시간) 수료증 발급

▶청다락방

회기	일 정	주 제	강사
1	10월 8일	청소년정서코칭	조영미
2	10월 15일	청소년은 꿈쟁이! & 오뚜기!	안창현
3	10월 22일	청소년 게임 놀이치료	임은경
4	10월 29일	미술치료의 실제	이정은

▶주 최 : 광신대학교 상담치료대학원 청소년상담지도학과
 ▶주 관 : 광신대학교 평생교육원